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7

질 좋은 전기 안정적 공급위해 시·도민 만족·희망의 레이스

한전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 시민들에게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여성구)가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양질의 전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이번 대회에는 한전 광주전남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마라톤동호회 ‘뛰어서 아름다운 사람들 모임’ (이하 뛰아모) 직원 50여 명이 참가한다.

‘뛰아모’는 지난 2001년 출범했다. 10년이

함께 뛰고, 웃고, 일하고

마라톤동호회 ‘뛰아모’ 50여명

동계훈련하며 직원 화합 다져

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이기에 회원들의 달리기 실력도 수준급이다. ‘뛰아모’가 맞을 올릴 때만 해도 회원수 20명 남짓이던 것이 지금은 어느덧 본부 회원만 70명, 사업소를 포함해 200여명이 넘는다.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의 대표 동호회가 된 단연지사이다.

이번 대회에서 회원들은 ‘고·고·고’ 정신

으로 달린다. ‘함께 뛰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의 마지막 글자를 딴 슬로건이다. 달리면서 몸과 마음가짐을 굳게 다져 안정적인 전기공급으로 시민이 매우 만족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레이스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다.

‘뛰아모’ 회원들은 만형 박판선 과장의 힘찬 ‘고·고·고, 맞!’ 구호에 맞춰 광주전을 달리며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뛰아모’ 양대동 회장은 “고객들이 매우 만족하는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며, 마라톤은 건강을 다지기 위해 가장 좋은 운동”이라며 “신이 내린 보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여성구) 마라톤 동호회 ‘뛰아모’회원들이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서 역주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뛰아모 회원들은 이번 대회를 ‘함께 뛰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신나는 일터를 만드는 레이스로 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함께 달리면서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목표지점을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깊어지기 때문이

다. 더욱이 함께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끈끈하고 애뜻한 정도 생겨난다는 게 회원들의 전언이다. 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깊은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격려할 수 있어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다. 양 회장은 “봄을 활짝 여는 광주일보 3.1

절 마라톤대회를 통해 동계훈련 성과를 평가하면서 직원간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며 “마라톤 동호회원들과 함께 뛰면서 화합을 다지고 시민에게 좋은 전기공급을 위해 뛰고 또 뛰는 한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IA 선수들이 21일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열린 라쿠텐과의 연습 경기에서 5-3 승리를 거둔 뒤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이날 승리로 KIA는 5연패에서 탈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회 6안타 5득점...KIA 연습경기 첫 승

선발 소사·불펜 이대환 합격점...김선빈 수비 맹활약

2안타 2타점 이범호 “부상 없이 개막에 맞춰 준비할 것”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연패에서 탈출한 KIA가 상승세를 이어간다. KIA 타이거즈가 21일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라쿠텐과의 연습경기에서 3회 대거 5점을 뽐내며 5-3으로 승리를 거뒀다. 앞선 5경기에서 모두 패를 기록했던 선수들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하며 경기를 마쳤다.

0-1로 뒤지던 3회, 9번 신중길의 중전안타를 시작으로 잠잠했던 타선이 폭발했다. 김주찬의 2루타와 김선빈의 볼넷이 이어지면

서 무사 만루, 이범호의 2타점 2루타가 나오면서 2-1 역전에 성공했다. 안타 행진은 최희섭·나지완까지 이어졌고 김상현의 희생플라이 그리고 안치홍의 2루타까지 계속되면서 5점을 뽐내며 성공했다.

위기 상황에서는 김선빈의 호수비가 돋보였다. 선두타자가 살아나간 2회 다이빙캐치를 해 병살타를 만들어낸 김선빈은 4회에도 몸을 날리는 멋진 수비로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세 번째 마무리 등판에 나서 앤서니가 9회 안타 2개를 허용하며 1점을 내줬지만 2사 1루에서 1루수 앞 땅볼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를 채우며 5-3 승리를 마무리 했다.

KIA가 5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지만 덕아웃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특별한 부상 선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과 불펜 세 얼골들의 테스트 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연패에도 불구하고 여유있는 분위기였다. 특히 지난해 코칭스태프의 예를 태웠던 이범호-최희섭-김상현의 ‘LCK’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위기상황을 통해 신에 투수 임준섭·안우주 등의 두둑한 배장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측은 패배였다.

이날 2루타 포함 2사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한 이범호는 “100%전력으로 끝까지 승부했다면 4승1패는 거뜰 정도의 경기였다. 지금은 불펜 젊은 선수들이 풀어나가는 기간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경기를 뛰고

있어서 좋다. 당장 4월에 맞춰 급하게 준비하기 보다는 5월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주전타자중 유일하게 선발 출전을 하지 못했던 안치홍이 처음으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것도 수확이다. 허벅지 통증으로 교체 멤버로 뛰었던 안치홍은 이날 7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해 7회까지 소화했다.

안치홍은 “그동안 교체로 나갔는데 오늘 처음으로 스타팅으로 뛰었다. 일본에서 타격이 너무 안 좋았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공이 맞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5회 무사 만루의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은 이대환과 선발로 등판해 4이닝 1실점을 기록한 소사, 완벽 수비를 선보인 김선빈에게는 MVP가 돌아갔다. 김선빈은 특별히 선동열 감독으로부터 ‘방망이 선물’을 받기도 했다. /wool@kwangju.co.kr

최희섭·이범호·김주찬 유쾌한 ‘보크 토론’

보크 선언 뒤 안타 쳤는데

선행주자 아웃 땀 재타격?

라쿠텐과의 연습경기가 열렸던 20일 경기장 밖에서 뜨거운 논쟁이 진행됐다. 주제는 ‘보크’.

토론자는 중도에 교체된 최희섭·이범호·김주찬이었다. 진해수의 보크를 보고 시작된 대화는 상황 설정으로까지 이어졌다.

논점은 “보크 선언 뒤 타격이 이뤄졌는데 안타가 나왔다. 그런데 3루에 가던 주자가 아웃이 됐다. 이럴 경우 재타격이 가능하냐?”였다.

최희섭은 “가능하다”, 이범호는 “불가능하다”, 김주찬은 “보크 선언 뒤 타격을 해서 아웃이 되면 재타격은 가능한데 이 상황은 잘 모르겠다”.

눈 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고 답을 구하기 시작한 이들, 결론이 나지 않자 불똥이 투수 출신 손혁에게 튀었다.

이범호는 해설자로 오키나와 캠프를 찾은 손혁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해설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이러면 경기하다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

다”며 으름장까지 놓았다.

“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느냐?”는 손혁의 불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된 이들의 해답찾기.

이들이 요란스럽게 보크 토론을 벌인 이유는 ‘알아야 대처를 한다’였다.

김주찬은 “보크가 선언된 뒤에 공을 쳐도 된다는 걸 모르는 타자들도 있을 것이다. 규칙을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토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보크는 투수의 기만 행위로 투수에게는 페널티, 타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개념.

일반적으로는 보크가 선언되면 타격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주자만 한 루씩 진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타자가 보크 상황에서 타격을 해서 안타 등 유리한 경우가 나오면 인플레이가 되고 아웃을 당하는 불리한 경우에는 볼 데드가 되면서 재타격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설정한 상황의 답은 ‘불가능하다’. 주자가 아웃되는 상황은 타자의 안타 인정이나 재타격 여부와 무관하다.

현장에서 뛰는 이들에게도 난해한 야구를 덕분에 KIA의 유쾌한 토론회가 상황을 이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최희섭·이범호·김주찬이 나란히 앉아 보크 룰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목포항 셔틀버스 매일 운항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 3만원으로 떠나세요.
셔틀버스+씨스타크루즈호 = 30,000원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대점 www.jejube.com 1644-2261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매일출발 155,000원
[목포, 장흥, 완도, 녹동출발 크루즈 및 쾌속선 왕복]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 - 트릭아트, 얼음박물관, 5D영상관

2일자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산방산유람선(현지직불), 올레길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3일자 삼나무숲길, 몽골리안마사주 or 매직소 (현지직불), 에코랜드 or 선녀와나무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해녀촌

포함사항 : 광주-목포,장흥,완도,녹동왕복 셔틀버스(45석 선착순),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 호텔(5~6인실), 일정표에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 가이드비,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식식, [완도,녹동]터미널-[완도,녹동]항 이동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3월6일 ~ 7월19일까지 적용됩니다.